

## ■ 지부탐방 ■

#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 김해지부



▲ 김해지부는 2004년 우수지부로 선정되었다. 전통있는 지부답게 각종 우승기 및 기념기가 즐비하다.

◀ 김해지부 이재식 지부장  
(본회 부회장)

김해의 쪽쪽 뺀 도로와 탁 트인 평야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김해까지 5시간은 족히 걸렸던 거리가 이제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 50분이면 충분하다. 속도혁명의 시대임을 새삼 느끼며 경상남도 김해지부를 방문했다. 기차에 내리자마자 들리는 김해사람들의 시원시원한 말투는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취재 : 이소영

## ■ 경남지역 양돈업의 자부심, 김해지부

김해지부는 1983년 7월에 설립하여 점점 회원수가 증가해 현재는 지부회원이 무려 160명이나 된다. 김해의 양돈 전업농가가 약 200여 농가인 것에 비할 때 김해의 양돈인 대부분이 김해지부 회원인 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양돈업도 조금씩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경남지역 양돈인들은 경남지역에 2개의 도매시장이 있고, 6개의 사료공장, 육가공공장이 15개가 있을 정도로 전국 양돈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 경남지역의 중심에 김해지부가 있다.



▲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집행부를 믿고 따라온 지역 양돈농가들에게 감사한 다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이재식 지부장과 집행부.

김해지역의 양돈업은 경남지역의 전체사육 두수의 약 26~27%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돈관련 산업까지 모두 감안하면 김해지역 전체산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이재식 부회장은 말한다.

“김해지부의 설립목표는 양돈인의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권익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있다. 처음 목표가 그대로 잘 지켜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재식 지부장의 목소리에는 경남 지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 다양한 지역행사 개최, 탁월한 조직력 자랑

김해지부는 양돈인의 밤, 무료시식회, 체육대회,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모금 및 양로원, 고아원 방문

등 연중 다양한 양돈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석률이다. “시식회와 세미나, 월례회의 체육대회 같은 것은 100여명쯤 오고, 양돈인의 밤 행사의 경우는 100% 참석합니다.” 지역 양돈인들의 결집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체 사무실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 참석한 회원들로 인해 자리가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보통 2달에 한 번 월례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세미나는 양돈관련 현안문제를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며, 지역 양돈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박봉균 교수(서울대), 김봉환 교수(경북대)를 초빙해 돼지 오제스키관련 방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리가 없어 세



▲ 김해지부 월례회의. 회원들 참석률이 매우 높아 100여명 수용 가능한 회의실이 늘 딱 찬다.

“ 회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협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해지부장으로서는 김해 양돈인들을 위해 땀흘려 노력했던  
순간들이 저의 큰 보람입니다. ”



미나 내내 서서 지켜본 회원도 있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이 같은 회원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단합으  
로 지금의 김해지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 ‘무조건적인 해양투기 감축은 양 돈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

#### -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한 분뇨처리 모색

역시 양돈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축산분뇨 문제  
이다. 해양수산부는 지  
난 3월 해양투기량을 올  
해를 시작으로 향후 7년  
간 지난해 9백74만9천㎡  
(잠정치)의 40%수준인 4백  
만㎡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뇨처리의 90%를 해양투  
기로 해결하고 있는 김해지역 양돈인들은 적  
절한 분뇨처리 공법이나 기술적인 문제해결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양투기를 줄이라는 것은  
양돈인들의 사육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말한  
다.

김해지부 이재식 지부장에 따르면 김해지  
부는 해양투기의 의존부분을 줄이기 위해, 작

년에 홍성과 예산지역을 방문하여 하수종말처  
리장과 연계한 인상적인 분뇨처리 사례를 토  
대로 김해지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연계하여 분뇨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해양투기 쿼터제에 시행에 맞춰 다  
양한 분뇨처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김해지  
부 집행부는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끌어 내어 내년부터 고액분리시설  
을 설치를 늘려 하수종말처  
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  
정이다.

작년에 9명을 시작으  
로 올해는 23명의 양돈농  
가가 고액분리기 시범사업  
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 축사시설의 현대화는 지속적인 양돈업을 위한 과제

이석원 사무국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가와 사육두수가 줄고 있으며 최근엔  
PMWS 등의 질병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

로 지속적인 양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래식 돈사로는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창돈사 등의 최신돈사로 개축할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까다로운 허가과정이나 자금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축산업 등록제 등과 연계하여 축사시설의 현대화는 지속적인 양돈업을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 오른쪽부터 이재식 지부장, 이호선 간사, 유창훈 운영위원, 이석원 사무국장, 최병수 부지부장.

## ‘축산인연합회’ 구성해 지역축산업 활성화

김해지역의 축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가 얼마전 농축산과로 통합 운영됨에 있어 축산업 지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김해지부는 축산과 부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김해지부는 지역내 축산인들을 규합하여 ‘축산인연합회’를 구성하여 축산과 부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재식 지부장은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임기내에 축산과 재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부회원의 80%가 부경양돈농협의 조합원이지만 협회와 조합의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재식 지부장은 협회와 조합간의 공동 연계사업을 통하면 더욱 지역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양돈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

“회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협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역할을 해보았지만 양돈협회의 지부장을 맡게 된 것이 제일 뿌듯하며,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재식 지부장은 김해지부와 같이 대규모의 지부를 운영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보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적극적으로 김해지역 양돈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식 지부장은 “지부장의 임기(3년)가 끝나가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노력은 많이 했으나 부족함이 많이 남아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집행부를 믿고 따라온 지역 양돈농가들에게 감사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이재식지부장과 지부 집행부의 결의는 남달라 보였다. **양돈**